

비혼성인자녀-부모 동거에 관한 웹 문서의 의미구조 분석과 가족치료적 함의*

최 연 실**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비혼성인자녀와 부모의 동거에 대한 웹 문서의 의미구조를 파악함으로써 현재 한국사회에서 ‘갬거루족’이라 일컬어지는 가족의 세대관계 속성에 접근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족치료적 함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포털사이트 네이버(NAVER)에서 제공되는 블로그, 카페, 뉴스, 지식iN 등의 웹 문서를 대상으로 하여, 텍스트(Textom) 3.0프로그램을 이용한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을 통해 빈도 분석, 중심성 분석, CONCOR 분석 등 핵심단어들의 의미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빈도분석에서는 ‘가족’, ‘사회’, ‘아동’, ‘결혼’, ‘경제’, ‘문제’, ‘독립’ 등이 부각됨으로써 흔히 ‘갬거루족’으로 일컬어지는 가족형태의 속성들이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심성 분석에서는 ‘가족’, ‘사회’, ‘결혼’, ‘문제’, ‘경제’, ‘아동’, ‘상담’ 등의 개념들이 의미 구조의 중심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CONCOR 분석에서는 ‘가족관련 요인’, ‘심리/상담관련 요인’, ‘경제관련 요인’, ‘사회/세대관련 요인’ 등 네 집단이 추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혼성인자녀와 부모의 동거를 둘러싼 문제가 가족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차원과 연관되어 있으며, 심리적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적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주제어 : 비혼성인자녀, 부모, 동거, 웹 문서, 텍스트마이닝

* 본 연구는 2015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것임 (NRF-2015S1A5A2A03048460).

** 교신저자 : 최연실 /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 (03016) 서울시 종로구 홍지문2길 20번지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 Tel : 02-2287-5317 / E-mail : yschoi@smu.ac.kr

I. 서 론

대부분의 인간은 그 발달과정에서 청소년기 이후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분리와 자아정체감 추구를 거치고, 청년기에 이르게 되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한 개인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특히 성인기의 진입은 취업이나 결혼 등의 생활사건과 더불어 독립적인 가구 형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비혼성인자녀의 수는 예전에 비하여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을 일컫는 속칭 ‘캥거루족’은 최근 몇 년간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의 캥거루족의 규모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가 산출된 바가 거의 없다. 지금까지 이와 관련한 보고로는 최형아와 이화영(2010)의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만 30~44세로서 미혼 이면서 부모와 동거하는 성인자녀들을 약 57만 명으로 산정하였다. 이 수치는 그 당시에서 10년 전에 비해 약 3배 증가한 것이었으나, 이는 10여 년 전의 자료이므로 현재 시점으로 볼 때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부모와 동거하는 비혼성인자녀의 증가 현상 이면에는 사회경제적 구조 변동에 따른 원인이 작용하고, 또 이러한 현상은 비단 한국 사회에만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한 차원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된다(Descartes, 2006; Vassallo, Smart & Price-Robertson, 2009; Yamada, 2004). 이들을 가리키는 용어도 ‘캥거루족’ 외에,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사용하는 ‘연어족’, ‘스크럼족(Scrums)’, ‘니트족(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프리터(Freeters)’뿐만 아니라 ‘패러사이트 싱글(Parasite Single)’(일본), ‘ILYA(Incompletely

Launched Young Adults)’(미국), ‘부메랑 키즈(Boomerang Kids)’(캐나다), ‘키퍼스(Kippers: Kids in Parents’ Eroding Retirement Savings)’(영국), ‘맘모네(Mammone)’(이탈리아), ‘네스트호커(Nesthocker)’(독일), ‘탕기(Tanguy)’(프랑스), ‘마마호텔(Mama Hotel)’(호주)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와 같이 비혼성인자녀의 부모와의 동거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는 하나 성인자녀 세대의 부모 의존과 동거는 사회적 차원으로만 접근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 고려해야 할 변수의 복잡성이나 특성의 편차가 상당하다. 캥거루족에 이르게 하는 ‘비혼’의 원인이 미혼인지 이혼인지에 따라서도 관계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그 나라의 가족가치나 문화적 맥락도 다르므로 캥거루족에 대한 이해는 이 모든 변수들을 고려함으로써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한국사회에서 성인자녀들의 부모와의 동거는 일본이나 서구와 동일하게 접근하기보다는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해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관점이 우세하며, 실제 한국사회에서의 연구 결과는 ‘패러사이트 싱글’이나 위에서 언급한 서구의 ‘일방적 의존’이라기보다 ‘상호 의존’의 여지를 시사하고 있다(성미애, 이재림, 최연실, 최세은, 2017; 성미애, 최세은, 최연실, 이재림, 2018; 최연실, 2014).

한편, 전통적으로 외국의 선행연구(Aquilino & Supple, 1991; Dinnerstein, Dudley & Guthrie, 2002)에서는 비혼성인자녀와의 동거가 노부부의 결혼만족이나 생활만족도를 저하시킨다는 부정적인 결과가 있고, 이는 한국 사회에서도 최근에 경험적으로 입증된 바가 있다(Choi, Sung, Choi & Lee, 2017).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부모나 자녀의 특성과 상관없이 모든 부

모에게 있어서 “빈 둥지(empty nest)”는 부부행복감의 유의한 향상을 가져온다는 White와 Edwards(1990)의 연구결과와 함께 고려해 볼 때, 부모 입장에서 켄거루족 자녀의 의존은 부모 역할이나 부담의 연장을 의미해 생활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비혼성인자녀와의 동거는 부모나 자녀 입장에서 모두 명암의 측면을 갖게 되는데, 가족치료의 현장에서도 이러한 켄거루가족의 형태에서 야기되는 가족문제의 임상사례들이 종종 보고되기도 한다(한국가족치료학회, 2016).

현재 시점에서 우리 사회에서는 성인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맺기에 대한 정상적이고도 특정한 규범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비혼성인자녀와 부모의 동거는 그 어떤 사회에서도 용이하지 않은 문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정해진 규범이 부재하는 것은 다른 사회에서도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전 세계에 걸친 사회경제적 고용이나 산업 구조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많은 사회에서 청년들이 성인기 진입에 진통을 겪고 있으며 심리적, 정서적, 물리적 독립의 이슈를 경험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현재의 한국 자녀세대들은 전통적으로 성인기 때 달성해야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독립’이나 ‘자율’의 가치와, 현실의 만만치 않은 여건 속에서 손쉽게 기대하게 되는 부모에 대한 ‘의존’이나 ‘지원’의 가치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주목 받는 것이 ‘세대 간 양가성’의 개념이다(이진경, 이재림, 2019). 세대 간 양가성은 심리적 양가성(psychological ambivalence)과 사회적 양가성(sociological ambivalence)이 두 축으로 맞물려 있는 개념(Connidis & McMullin, 2002a, 2002b)으로

서, 이러한 세대 간 양가성을 느끼는 사람은 동일한 대상에게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동시에 느끼게 되는데(Raulin, 1984), 비혼성인자녀들과 동거하는 부모들이 바로 이러한 양가적인 감정을 서로에게 느낄 수 있다. 자녀는 부모에 대한 일방적인 의존에서 벗어나 독립성과 자율성을 추구하고자 하면서도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모에게 지속적으로 의존하고자 하는 바람도 갖고 있고(김은정, 2014, 2015), 또 부모는 한편으로는 자녀가 경험하는 생애과정의 변화에 따라 경제적, 주거적, 도구적 측면에서 도움을 주면서도(배희선, 2008; 최여진, 이재림, 2014; 최연실, 2014),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버거워하고 부담스럽게 느끼기도 한다(성미애, 최연실, 최새은, 이재림, 2017). 문제는 이러한 한국의 비혼성인자녀-부모 동거에서의 의존과 독립의 양가적인 관계가 가족의 현실에서는 혼란과 갈등,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에 대한 정돈된 규범이 없다면, 이는 개별 가족에서 함께 협상하고 타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켄거루족의 가족현실은 임상적 개입을 요구할 여지와 가능성이 큰데, 이에 대한 가족치료적 관점이나 접근 전략은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거의 논의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기초적이고 탐색적인 성격을 갖는 연구로서 데이터마이닝 분석을 통해 비혼성인자녀-부모 동거에 대한 웹 문서의 의미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가족치료적 함의를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가족치료적 차원에서 켄거루가족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가족들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들이 어떤 속성을 지니

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인 작업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웹 문서를 통해 비혼성 인자녀와 부모의 동거에 대한 의미구조를 탐색하는 작업은 네트워크상에 수없이 퍼져있는 정보를 분석해 정보들 간의 관련성 및 응집구조를 살펴봄으로써 이들에 개입하는 가족치료 접근과 전략의 핵심적인 요소를 추출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혼성인자녀-부모의 동거에 관한 웹 문서에서 도출되는 핵심단어는 무엇인가?

둘째, 도출된 핵심단어들 중 중심성이 높은 단어들은 무엇이며, 핵심단어들의 의미 네트워크는 어떠한가?

셋째, 네트워크 내에서 핵심단어들은 어떠한 하위집단으로 분류되며, 하위집단의 관계는 어떠한가?

II. 선행연구 고찰

비혼성인자녀와 부모의 동거에 관해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들은 주로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을 중심으로 분석한 양적 연구들과 소위 ‘캥거루족’의 성격을 갖는 대상들에 대한 질적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특히 기초자료 분석의 성격을 갖는 가족학, 사회학 등의 분야에서 나온 연구들이 대부분으로서 이들 가족의 내면적 관계에 대한 분석이나 가족문제에 대한 임상적 접근은 거의 시도된 바가 없다. 다음에서는 비혼성인자녀와 부모의 동거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외국과 국내의 선행연구 범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1. 국외 선행연구 고찰

비혼성인자녀와 부모의 동거는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세계적인 현상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도 각 나라에서 시도되었다. 이러한 외국 연구들 중 대표적인 경우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Lin과 Yi(2013)는 비혼에 국한시키지 않고 가부장제의 문화적 배경을 공유하는 중국, 일본, 한국과 대만 등 4개의 동아시아 국가에서 성인자녀와 부모의 동거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이들 4개의 동아시아 사회에서 현재의 세대 간 관계는 지속성과 변화를 모두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들의 연구에서는 동아시아의 변화하는 가족구조에도 불구하고, 세대 간 동거는 분명히 가부장적인 것으로 남아있고 여전히 성인자녀가 부모를 지원하는 효 규범이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동시에 젊고, 결혼하지 않고, 덜 교육받은 성인자녀들이 그들 부모와 살게 되는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동아시아에서 세대 간 지원의 전통적인 패턴이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았다. 부가해서, 이 연구에서는 효 규범이 강하게 남아 있기는 하지만 자식의 도리를 실제로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양한 자원을 가진 성인자녀들이 다 같이 공유하고, 관계 패턴의 변화와 지속성이 모두 관찰된다는 점에서 중국, 일본, 한국과 대만에서의 세대 간 관계는 유사한 특징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한편, 동아시아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유럽에서도 비혼성인자녀들이 부모와 동거하는 현상을 다룬 연구가 있다. 그 중에서도 Manacorda와 Moretti(2006)의 연구에서는 18세에서 30세 사이의 이탈리아 남성들의 80% 이상

이 그들의 부모와 함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현저히 높은 성인자녀와 부모의 동거비용에 기여하는 한 가지 요인은 부모가 함께 살고자 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은 부모 선호의 역할을 조사하기 위해서 가계소득 및 복지 조사 자료를 사용해서 이탈리아에서의 동거 비용에 미치는 부모 소득에서의 외생적 변화의 효과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부모 소득의 상승은 자녀가 집에서 함께 사는 경향을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대안적 해석의 가능성을 명백히 배제할 수는 없었지만, 이러한 결과들은 동거가 이탈리아의 부모들에게 정상적으로 좋은 것이라는 가설과 부합된다고 보았다. 한편, Gierveld, Dykstra와 Schenk(2012)는 서구보다 동구에서 노부모의 외로움 수준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들의 연구에서는 혼자 사는 노인들이 가장 외롭고, 파트너와 함께 사는 노인들이 가장 덜 외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자녀들이 노부모와 함께 사는 것은 보호를 제공해주지만 파트너만큼 외로움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었다. 성인자녀와 부모가 동거하는 가정이나 성인자녀가 독립한 가정에서 모두 부모들이 성인자녀들로부터 지원을 받기보다는 성인자녀에게 지원을 해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서구와 동구의 국가들에서 모두 성인자녀들로부터 지원을 받는 노인들이 가장 외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는 것에 긍정적인 이탈리아와 달리 미국의 부모들은 성인자녀와 동거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약하다. White와 Edwards(1990)는 자녀들의 진수가 부모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전국 무선표본에서 나온 패널자료를 이용하였다.

부모나 자녀의 특성과 상관없이 모든 부모에게 있어서 “빈 둥지(empty nest)”는 부부행복감에서 유의한 향상을 가져왔다. 전반적인 생활 만족은 오직 두 가지 조건 하에서만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즉 함께 살지 않는 자녀와 빈번한 접촉을 할 때와 가정에 어린 10대가 있을 때였다. 부모의 복지 측정치에 있어서 빈 둥지의 긍정적 효과는 자녀들이 떠난 직후에 바로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Aquilino와 Supple(1991)은 가정에서 성인자녀(19세~34세)와의 동거에 대한 만족도는 부모-자녀 갈등과 부모-자녀 간 긍정적인 상호작용 수준과 관련이 높다고 하였다. 그들의 연구에서 자녀의 경제적 의존과 실업은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을 증가시켰다. 또한 이혼이나 별거로 인해 자녀들이 집으로 돌아오거나 손자녀가 함께 살게 되는 것은 부모의 동거에 대한 만족도를 감소시켰다. 또한 Dinnerstein 등(2002)은 여성들 대부분에게 있어, 가정에서 마지막 자녀가 떠나는 것은 기분 상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집안 일거리를 줄이게 만든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자녀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부모들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 소개한 외국 연구들과는 달리, Silverstein과 Bengtson(1997)은 성인자녀-부모 관계의 사회심리학적, 구조적, 상호작용적 측면을 검토함으로써 세대 간 응집력의 구조를 조사하였다. 연구자들은 세대 간 유대의 3가지 기본 차원(정서, 기회구조, 기능)에 기초한 유형들을 개발하기 위하여 잠재유형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의 관계에 대해 동일한 5가지 유형(짝 짜인 유형, 사교적인 유형, 친밀하지만 소원한 유형, 의무적 유형, 거리를 두는 유형

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관계 유형은 사회인구학적 특징에서 각기 차이가 있었고 아버지와 이혼한 부모는 가장 약한 응집력을 갖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바탕을 두고, 연구자들은 미국 가족 내에서의 성인 세대 간 관계가 구조적으로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들 가족구성원의 욕구에 따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2. 국내 선행연구 고찰

다음에서는 비혼성인자녀-부모의 동거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성인자녀와 노부모의 관계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비혼성인자녀들에 국한하여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아주 최근에 들어서이다. 먼저, 최여진과 이재림(2014)의 연구는 비혼성인자녀들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으나, 성인자녀에 대한 부모의 도구적 지원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성인자녀 지원에 대한 태도와 실제 지원 제공 사이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성인자녀를 도구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실제로는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반대로 성인자녀를 지원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태도를 지지하지 않더라도 실제로는 지원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성인자녀를 지원해야 한다는 태도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는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이나 가사노동, 손자녀 돌봄을 지원하고 있는 부모의 경우, 성인자녀 지원에 관한 태도 및 가치관과 실제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심리적 복지나 부모-성인자녀 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점이 특이하다고 볼 수 있다.

국내 비혼성인자녀와 부모의 동거에 관한 본격적인 접근을 시도한 성미애 등(2017)의 연구에서는 부모와 비혼 성인자녀의 동거 여부 및 경제적 의존 여부를 중심으로 부모-비혼성인자녀 관계를 집단별로 살펴보았다. 그 연구 결과는 비혼성인자녀세대의 부모에 대한 의존이 현실적인 가족 여건이나 양 세대의 가치 및 태도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현실적으로 비혼성인자녀의 의존을 감당할 수 있는 부모세대의 능력과, 이러한 삶의 형태를 당연시하는 문화적 가치가 이들 삶의 근거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이러한 삶의 양식을 선택하였거나,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지지하는 가치 및 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의존하면서 실리를 찾는 비혼성인자녀세대의 상황은 부모세대와 성인자녀세대 모두의 주관적 행복을 떨어뜨린다. 특히 양 세대 중 실제 성인의 발달과업을 실현하지 못하고 부모와 동거하면서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비혼성인자녀가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안고 살아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재는 ‘동거·의존형’도 부모세대와 관계는 잘 유지하고 있지만, 부모가 더 노년기에 접어들고 이러한 관계가 장기화될 때는 두 세대 관계에 갈등을 야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자들은 부모가 중기 및 후기 노인이 되면 일본에서 등장했던 ‘패러사이트 싱글’의 문제와 같은 세대 간 관계 갈등 및 경제적 문제가 부각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그 다음으로 발표된 Choi 등(2017)의 연구에서는 한국의 서울에 거주하는 35세 이상의 비혼성인자녀와 부모의 세대 간 동거가 노부모의 결혼의 질을 다소간 위협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결혼만족

도와 갈등에 미치는 세대 간 동거의 영향은 세대 간 친밀성과 가사노동을 고려할 때 사라지고, 세대 간 접촉의 빈도는 부모가 성인자녀와 함께 살 때조차도 노부모의 복지에 유익하게 영향을 미치며, 성인자녀를 도와주기 위해 가사노동을 제공하는 것은 노부모의 관계적 복지에 반드시 해로운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같은 해에 발표된 성미애 등(2017)의 연구에서는 아버지가 부재하는 가족 내에서 비혼 딸과 어머니가 동거하는 경험을 다루었다. 이 상황에서의 동거 상황과 모녀관계는 가사노동 등 일상생활의 유지 측면에서만 보면 비혼 딸이 어머니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관계로 보인다. 하지만 모녀 간 상호작용 메커니즘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상호의존이 이루어지면서 밀착된 2인관계로 지속되고 있음을 보인다. 연구자들은 결국 이들의 관계는 상호의존의 틀에서 유지되고는 있으나, 비혼 딸의 결혼을 둘러싸고 갈등과 긴장이 증폭될 수 있는 구조임을 시사하였다.

한편, Lee, Choi, Choi와 Sung(2017)은 Silverstein과 Bengtson(1997)이 시도한 분석방법을 한국의 부모와 동거하는 비혼성인자녀에게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의 대상은 75세 이하인 부모와 함께 사는 35세 이상의 비혼남녀 250명으로서, 연구자들은 부모와 동거하는 비혼성인자녀의 유형을 세대 간 관계의 가족구조적, 기능적, 연합적, 정서적, 그리고 갈등적 특징에 기초해서 분류해 보고자 시도하였다. Silverstein과 Bengtson(1997)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통계방법으로서 잠재유형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사용한 이 연구 결과에서 응답자들은 세대 간 관계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다섯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이 다섯 집

단 안에서 재정적, 도구적 지원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었지만, 정서적이고 갈등적인 측면 등의 심리적 적응에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최근에 발표된 성미애 등(2018)의 연구에서는 이혼한 딸과 부모의 동거 경험을 다루었다. 이들의 관계는 현 시점에서 보면, 이혼한 딸의 일방적 의존의 측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망해 보면, 이혼한 딸과 부모 간에 호혜성이 보이고 딸이 부모와의 동거에서 감사와 편안함을 느끼면서 장기적으로 지속시키고 싶은 생활양식으로 현재의 삶을 인식하고 있고, 이는 이후 노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으로 연결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발표된 이진경과 이재림(2019)의 연구는 어떠한 특성의 세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청년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양가성을 경험하는지 탐색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세대 간 양가성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고, 세대 간 결속의 구조적, 연합적, 합의적, 기능적, 규범적 차원과 부모에 대한 양가성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청년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양가성의 평균은 모두 중간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고, 둘째, 연합적, 기능적, 규범적 결속 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양가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II. 연구방법

1. 텍스트마이닝 분석

본 연구는 텍스트마이닝을 사용한 연구이

다.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은 언어로 기술된 비정형화된 텍스트를 자연어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활용가능한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토대로 분류 혹은 군집화, 정보를 요약하거나 연계성을 파악하는 과정이다. 즉, 데이터 안에 숨겨진 의미 있는 정보를 발견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송태민, 송주영, 2015). 이러한 텍스트마이닝의 분석 과정은 수집한 텍스트에서 키워드를 추출하여 키워드별 빈도를 산출한 후에 비슷한 속성을 가진 키워드들끼리 묶어주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통해 비혼성인자녀-부모의 동거와 관련된 의미구조 분석을 통해 비가시화된 담론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아가 가족치료적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네이버(NAVER)의 웹문서들에서 ‘비혼성인자녀’, ‘부모자녀관계’, ‘동거’, ‘캥거루족’의 키워드로 검색하여 비정형 텍스트를 추출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분석 방법은 텍스트마이닝 기법 중 하나인 의미 네트워크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이다. 의미 네트워크 분석은 자연어 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텍스트 자료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Fan, Wallace, Rich, & Zhang, 2006)이다. 네트워크 상에서의 각 노드는 텍스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로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적합한 개념들만을 선택해야 된다(박치성, 정지원, 2013). 이러한 의미에서 어떠한 단어를 선택하고 개념화하여 노드로 정의할 것인지는 연구자가 내려야 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김준현, 2015). 연구자의 판단으로 선택된 단어들 간의 관계는 링크(link)로 표현되며 이러한 관계는 텍스트 내 단어들 간 동시출현 빈도로 파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의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의미를 구성하는 노드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특정 주제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구조를 탐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노드가 모여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은 단어들이 모여 하나의 주제로 나타낸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단어가 인간의 인지구조 내 개념의 반영이며, 특정 주제와 관련된 단어들은 기억 구조 내에서 범주화된 개념들임을 가정한다(이동일, 이해준, 2012).

2. 분석대상과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국내 포털사이트 네이버(NAVER)에서 제공되는 블로그, 카페, 뉴스, 지식 iN 등의 웹 문서를 자료 수집범위로 선정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한 검색 키워드는, ‘비혼성인자녀’, ‘부모자녀관계’, ‘동거’, ‘캥거루족’으로 좀더 명확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성인자녀-부모의 동거와 관련되는 주제어를 추가하였다. 제시한 검색어의 숫자가 줄어들수록 수집되는 자료의 양은 많아지지만, 연구와 관련 없는 데이터가 수집될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이를 방지하고자 검색어 수를 늘렸다. 본 연구의 목적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족치료적 함의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으므로, 검색어의 수를 늘리고 학문적 성격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엄격한 자료 추출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도출된 키워드들을 토대로 분석하여 나타나는 네트워크를 간략화 하고자 60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에 사용된 도구는 텍스트톰(Textom) 3.0 프로그램이다. 텍스트톰은 한국어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프로그램으로, 인터넷상에 있는 비정형화된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며, 수집한 데이터를 정제(cleaning)할 뿐

〈표 1〉 분석자료 정보

구분	내용
수집범위	NAVER (블로그, 카페, 뉴스, 지식 iN 등 웹 문서)
수집기간	2014년 10월 17일 ~ 2018년 10월 17일
수집도구	TEXTOM 3.0
검색어	‘비혼성인자녀’, ‘부모자녀관계’, ‘동거’, ‘캥거루족’,
분석도구	UCINET 6.0, NetDraw, Netminer 4.3

만 아니라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도록 매트릭스를 추출할 수 있다(권소영, 박지수, 이재림, 2018).

자료수집의 기간 범위는 2014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최근 5년간으로 한정하였다. 분석자료 정보 및 수집범위별 분석대상 텍스트 빈도는 표 1, 표 2와 같다. 수집 자료에, ‘비혼성인자녀’, ‘부모자녀관계’, ‘동거’, ‘캥거루족’ 등의 단어가 포함된 텍스트 원문은 총

278건으로 블로그가 187건(67%)을 차지하였으며, 카페 43건(16%), 뉴스 22건(8%), 지식 iN 17건(6%), 기타 문서 9건(3%)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책임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대학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로부터 연구윤리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

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수집된 텍스트들을 토대로 데이터 정제(data cleaning) 과정을 진행하였다. 데이터 정제 과정은 동시출현(co-occurrence) 단어의 빈도 계산과 의미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동시출현 행렬 매트릭스를 만들어 내는 데 필요하며(권소영 등, 2018), 네트워크 분석에 필요한 노드(node)를 설정하기 위한 기본 과정으로서 텍스트에 담겨 있는 수많은 어휘들을 개념화하여 관계파악을 위한 분석단위로 선정하는 작업이다(조재인, 2011). 이러한 데이터 정제는 분석 단어들의 개수에 영향을 미쳐 네트워크의 구조를 변화시키며 최종 분석결과에까지 포괄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박치성, 이준성,

〈표 2〉 수집범위별 분석대상 텍스트 빈도 (N=278)

항목	n	%
수집기간		
2014	38	14
2015	51	18
2016	72	26
2017	53	19
2018	64	23
수집범위		
블로그	187	67
카페	43	16
뉴스	22	8
지식iN	17	6
기타	9	3

2017). 본 연구의 데이터 정제과정에서는 우선, 비정형 텍스트의 전처리를 거쳐 명사 형태의 단어로 데이터를 추출한 후, 각 키워드별 빈도를 산출하여 비혼성인자녀-부모 동거에서 나타나는 핵심단어들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검색어이자 핵심단어인 ‘비혼성인자녀’, ‘부모자녀관계’, ‘동거’, ‘갱거루족’은 이들 단어에 연관되는 단어들을 추출하고자 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수집된 자료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지만 의미 없는 단어인 ‘경우’, ‘이상’, ‘비율’, ‘답변’, ‘유형’, ‘이후’, ‘때문’ 등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더불어,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도 하나의 단어로 통일시켰다. 예를 들어, ‘아파트’와 ‘주택’은 ‘집’으로, ‘혼인’과 ‘결혼’은 ‘결혼’으로, ‘일자리’, ‘직장’, ‘회사’는 ‘일’로 단일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띄어쓰기로 인하여 서로 다른 단어로 분류되는 유형들도 정제 작업을 거쳐 수정하였다. 그 예로 ‘부모자녀 관계’, ‘갱거루 족’, ‘기성 세대’, ‘가족 관계’, ‘결 혼’ 등 서로 떨어져 있는 단어들을 결합하여 영향력이 큰 단어의 빈도수가 낮게 책정되지 않도록 처리하였다.

둘째, 텍스트를 이용하여 핵심단어의 빈도를 분석한 후에, 동시출현 행렬 매트릭스(co-occurrence matrix)를 생성하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자주 등장한 핵심단어 중 동시출현하는 단어 간의 빈도수를 기준으로 생성되는 것인데, 키워드 간 동시출현 빈도를 Pearson 상관 유사도로 정규화한 행렬을 의미한다(장령령, 홍현진, 2014). 의미 네트워크 분석 시에 데이터의 모든 단어를 사용할 경우 노드의 개수가 너무 많아서 시각화하여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분석에 포함되는 단어의 수를 제

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며 보통 연구자가 시각화에 적절한 수를 결정한다. 단어 수가 너무 적을 경우에는 전체 네트워크를 조망하기 어려우며, 단어 수가 너무 많으면 네트워크의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권소영 등, 2018). 본 연구에서는 빈도와 단어 수를 고려하여 출현빈도가 6회 이상인 60개의 단어로 분석에 포함될 기준을 정하고 동시출현 행렬 매트릭스를 생성하였다.

셋째, 의미 네트워크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을 통해 중심성 분석(central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는 비혼성인자녀-부모 동거관련 웹 문서에 나타난 일반적인 인지 및 인식구조를 파악하고 접근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심성 분석은 네트워크 내 각 키워드들의 역할을 파악하는 과정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각 노드들의 연결중심성, 위세중심성, 매개중심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은 한 노드가 다른 노드들과 얼마나 연결되어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분석 방법으로 한 키워드가 네트워크 내 다른 키워드들을 직접적으로 연상시키는 정도를 나타낸다(김용학, 김영진, 2016). 다음으로, 위세중심성(prestige centrality)은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노드들과의 연결정도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연결된 노드의 중요성에 가중치를 둔다. 즉, 네트워크 연결망의 연결된 값들을 어떤 노드가 가장 많이 설명하는지를 알 수 있다. 위세중심성의 척도는 ‘파워중심성(power centrality)’과 ‘아이겐벡터 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이 가장 유명한데, 본 연구에서는 아이겐벡터 중심성을 사용한다. 아이겐벡터 중심성은 ‘고유벡터 중심성’ 또는 ‘연쇄중심성’이라 하며, 네트워크 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중심 노드를

찾는 데 유용하다(이수상, 2012). 또한,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은 한 노드가 다른 노드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 중개적 혹은 다리 역할을 얼마나 수행하는지를 측정하는 개념으로 인지구조의 전체 연결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김용학, 김영진, 2016).

마지막으로, 각 노드들 간에 복잡하게 얽힌 연결망 안에서 동일한 지위와 역할, 즉 유사성을 가진 단어들을 탐색하기 위해 CONCOR(CONvergence of iterated CORrelations) 분석을 실시하였다. CONCOR분석은 군집분석의 일종으로서 다른 말로 ‘블록모델링(block modeling)’이라고도 불리며, 상관관계 분석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적절한 수준의 유사성 집단을 찾아내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간접적인 연결 패턴의 상관관계에 근거하여 노드들을 동일 집단으로 나누어 숨겨진 하위집단을 발견하고 집단들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김용학, 김영진, 2016; 김해원, 전채남, 2014; 이수상, 2012). 본 연구에서의 CONCOR 분석에서는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산출된 빈도값들을 매트릭스(matirx) 형태로 데이터로 구성하고, 형성된 매트릭스 데이터를 토대로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여 상관관계가 수렴할 때까지 반복 실행하여 집단을 구분하였다. CONCOR분석에서 도출된 하위집단에는 적절한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각 하위집단에 포함된 단어들을 기준으로 그 성격을 특징짓는 이름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심성 분석의 분석도구로는 Netminer 4.3을 활용하였으며, CONCOR분석은 UCINET6.0과 Netdraw를 활용하였다. 중심성 분석에 사용된 Netminer 프로그램은 결과값을 표준화된 값($n>1$)로 나타내며, 분석 결과를

동심원형으로 시각화하여 보여주기 때문에 유용하다. UCINET 6.0은 다양한 연결망 분석 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UCINET 프로그램 안에 있는 Netminer 프로그램을 통해 네트워크 분석 결과값을 시각화할 수 있다.

IV. 연구결과

1. 비혼성인자녀-부모 동거 관련 핵심단어 빈도

비혼성인자녀-부모 동거 관련 핵심단어가 웹 문서에 등장하는 빈도를 순위별로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우선,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가족’으로 136회 나타났다. ‘가족’ 외에 ‘아동’(55회, 3위), ‘부부관계’(24회, 11위), ‘노인’(21회, 18위), ‘노부모’(20회, 20위), ‘조부모’(7회, 55위) 등 가족원과 가족관계와 관련된 단어들이 자주 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비혼성인자녀-부모 동거의 이슈가 이러한 가족원들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어들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사회’(71회)였다. 이를 통해 비혼성인자녀-부모 동거는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사회적 관심의 환기와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와 동거하는 성인자녀들을 일컫는 용어로 ‘캥거루족’, ‘연어족’, ‘니트족’ 등의 신종 유행어가 등장하고 이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증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연관해, ‘문제’(38회), ‘청년’(23회), ‘교육’(11회), ‘복지’(11회),

〈표 3〉 비혼성인자녀-부모 동거 관련 핵심단어의 빈도 순위

순위	단어	빈도	순위	단어	빈도
1	가족	136	31	역할	12
2	사회	71	32	어려움	12
3	아동	55	33	교육	11
4	결혼	54	34	복지	11
5	경제	41	35	나이	10
6	문제	38	36	은퇴	10
7	독립	38	37	보호	10
8	이혼	36	38	지출	10
9	세대	35	39	해결	9
10	상담	26	40	자립	9
11	부부관계	24	41	기혼	9
12	생활	24	42	성격	9
13	가난	23	43	가족문제	9
14	집	23	44	건강	9
15	청년	23	45	소득	9
16	양육	22	46	상황	9
17	취업	21	47	가족복지	8
18	노인	21	48	용돈	8
19	의존	21	49	노후준비	8
20	노부모	20	50	학교	8
21	재혼	20	51	가족생활주기	8
22	발달	19	52	현실	8
23	가족관계	18	53	졸업	8
24	노년기	18	54	노후	7
25	성	18	55	조부모	7
26	비용	18	56	기능	7
27	부양	16	57	노화	7
28	지원	16	58	갈등	7
29	일	13	59	친밀	7
30	미혼	13	60	독신	6

‘보호’(10회), ‘상황’(9회), ‘가족복지’(8회), ‘학교’(8회), ‘졸업’(8회) 등을 주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결혼’(54회)이었다. 부모와 동거하게 되는 배경이 비혼이기 때문에 이 단어가 자주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이혼’(36회)도 부모와 동거하는 배경이 되기 때문에 빈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재혼’(20회), ‘기혼’(9회), ‘독신’(6회) 등도 결혼과 관련된 단어로 볼 수 있다.

넷째, ‘경제’(41회, 5위)라는 단어가 비교적 많이 나타났다. 비혼성인자녀의 부모와의 동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경제적 요인은 이것 외에도 ‘독립’(38회), ‘생활’(24회), ‘가난’(23회), ‘집’(23회), ‘취업’(21회), ‘비용’(18회), ‘부양’(16회), ‘지원’(16회), ‘일’(13회), ‘은퇴’(10회), ‘지출’(10회), ‘자립’(9회), ‘소득’(9회), ‘용돈’(8회), ‘노후준비’(8회), ‘현실’(8회) 등이 관련 핵심단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관계나 정서 등의 심리적 차원 관련 핵심단어들도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상담’(26회)이 10위권에 들어있어 상당히 주목을 끈다. 비혼성인자녀-부모의 동거가 문제 상황과 연결되어 상담적 소재로 등장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양육’(22회), ‘의존’(21회), ‘성’(18회), ‘역할’(12회), ‘어려움’(12회), ‘해결’(9회), ‘성격’(9회), ‘가족문제’(9회), ‘기능’(7회), ‘갈등’(7회), ‘친밀’(7회) 등의 핵심단어가 이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여섯째, 상대적으로 소수이지만 발달적 차원 관련 핵심단어들도 나타났다. ‘세대’(35회), ‘발달’(19회), ‘노년기’(18회), ‘나이’(10회), ‘건강’(9회), ‘가족생활주기’(8회), ‘노후’(7회), ‘노화’(7회) 등이 여기에 해당되었다.

2. 비혼성인자녀-부모 동거 관련 핵심단어의 중심성

본 연구에서는 비혼성인자녀-부모 동거와 관련된 웹 문서에 나타난 핵심단어들의 의미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결중심성, 위세중심성, 매개중심성 등 각각의 중심성 수치가 높은 단어들을 20개의 순위상으로 살펴보았다.

〈표 4〉 비혼성인자녀-부모 동거 관련 핵심단어의 연결중심성

순위	단어	연결중심성 수치
1	가족	.847
2	사회	.797
3	결혼	.797
4	문제	.746
5	경제	.678
6	생활	.559
7	세대	.542
8	부부관계	.525
9	독립	.508
10	아동	.492
11	재혼	.492
12	이혼	.475
13	의존	.475
14	노부모	.475
15	가족관계	.475
16	부양	.475
17	상담	.458
18	취업	.458
19	노인	.424
20	학교	.424

둘째, 위세중심성은 기본적으로 한 노드의 영향력 또는 중요도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척도이다. 연결된 이웃노드의 중심성이 높으면 연결한 노드의 중심성도 증가하지 않겠는가 하는 관점을 반영한 것이다. 즉 연결된 노드들의 중심성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노드의 중심성을 측정하는 값이다(이수상, 2012). 연결중심성은 다른 노드들과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만을 고려하는 지표인데 비해, 이 개념은 연결된 노드의 중요성을 함께 고려한다는 점에서 위세중심성은 연결중심성과 차이가 있다(권소영 등, 2018).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개별 노드의 중심성을 그 노드와 연결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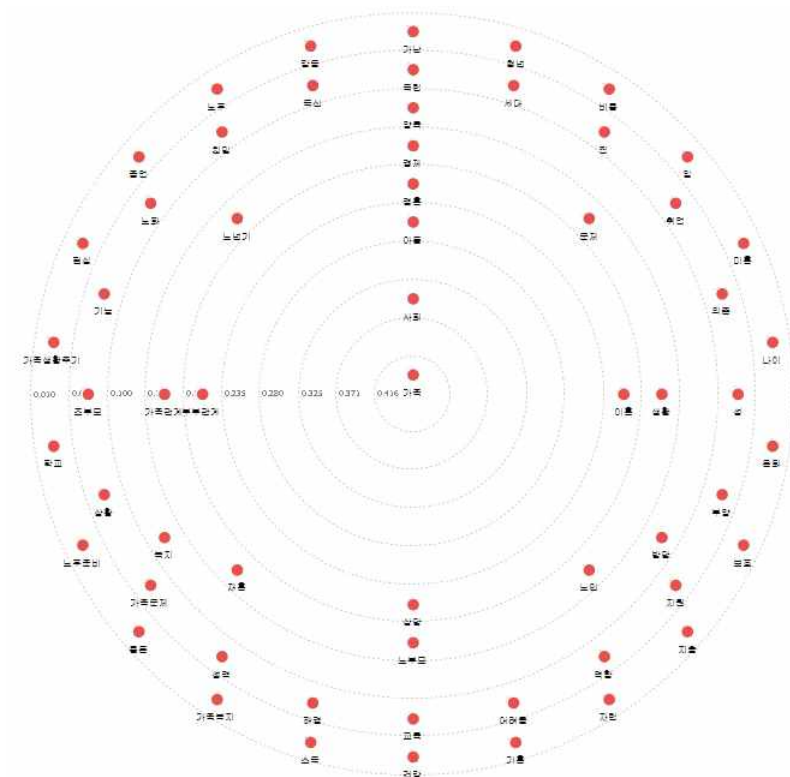
〈표 5〉 비혼성인자녀-부모 동거 관련 핵심단어의 위세중심성

순위	단어	위세중심성 수치
1	사회	.065
2	가족	.064
3	결혼	.060
4	문제	.045
5	경제	.043
6	세대	.037
7	독립	.025
8	취업	.025
9	생활	.024
10	노인	.019
11	의존	.016
12	노부모	.016
13	부양	.016
14	부부관계	.014
15	재혼	.014
16	아동	.013
17	이혼	.012
18	집	.012
19	가족관계	.011
20	학교	.010

다른 노드의 중심성 지표를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는 위세중심성이 높은 핵심단어로 ‘사회’, ‘가족’, ‘결혼’, ‘문제’, ‘경제’가 나타났다. 연결 중심성의 중심성 수치와 거의 차이가 없고 다만 ‘사회’와 ‘가족’의 순서가 바뀌어 ‘사회’가 ‘가족’보다 더 영향력 있는 다른 노드들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비혼성인자녀의 부모와의 동거는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성격이 강함을 알 수 있다. 위세중심성의 구체적인 수치는

표 5에, 이를 도식화한 것은 그림 2에 나타나 있다.

셋째, 매개중심성은 한 노드가 다른 노드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있어 중개자 혹은 다리 역할을 얼마나 수행하느냐를 측정하는 개념으로서 중개 역할을 ‘중심’으로 간주할 때 사용한다. 매개중심성은 한 노드가 네트워크 내의 다른 노드들 사이에 위치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이 위치에 있는 개념은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는 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이수상, 2012).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매개중심성이 높은 핵심단어를 순서대로 제시하면, ‘가족’, ‘사회’, ‘아동’, ‘결혼’, ‘상당’이다. 3 순위까지의 핵심단어에서는 연결중심성, 위세중심성과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매개중심성에 있어서는 특이하게도 ‘아동’과 ‘상당’이 등장하였다. 비혼성인자녀-부모 동거와 관련하여 물론 ‘가족’, ‘사회’, ‘결혼’이 여전히 핵심단어이기는 하나, 다른 개념들 상이에서 교량 역할, 혹은 정보의 흐름에서 중개자, 문지기의 역할을 하는 단어들에는 ‘아동’이나 ‘상당’이 부각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여기서 ‘상당’이라는 핵심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눈여겨볼만한 대목인데, 비혼성인자녀가 부모와 동거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의식이나 갈등, 마찰 등의 부정적 측면을 이 핵심단어가 매개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아동은 비혼성인자녀 중 부모와 동거하는 가족 중 이혼 후 아동인 자녀의 문제로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추론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매개중심성의 구체적인 수치는 표 6에, 이를 도식화한 것은 그림 3에 나타나 있다.



[그림 2] 비혼성인자녀-부모 동거 관련 핵심단어의 위세중심성

3. 비혼성인자녀-부모 동거 관련 핵심단어의 하위집단

본 연구에서 CONCOR분석을 실시한 결과, 그림 4와 그림 5와 같이 4개의 하위집단이 나타났다. 각 하위집단별 핵심단어는 표 7과 같다.

여기서의 핵심단어는 그림 5의 클러스터 다이어그램에 나타난 번호 순서대로 표기하였다.¹⁾ 그리고 표 7의 집단명은 하위집단에 속한 핵심단어를 토대로 연구자가 명명하였다. CONCOR분석 결과, 포함된 핵심단어의 수가

가장 많고 또 다양성도 높은 집단 1은 ‘가족 관련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이 집단에는 ‘가족, 사회’가 가장 높은 빈도수를 차지함으로써 비혼성인자녀-부모의 동거가 기본적으로는 가족적 배경이 작용하지만, 사회적 맥락과 강하게 연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결혼, 재혼, 생활, 발달’과 같은 핵심단어들의 존재는 성인자녀이지만 부모와 동거를 하게 되는 원인이 결혼과 같은 발달과제의 연기, 이혼 등으로 인한 독신 상태에서의 생활 유지, 재혼에 대한 전망 등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내포한다. 한편, 이 집단에서 ‘문제’라는 핵심단어의 빈도가 높은 순위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비혼성인자녀-부모의 동거는 부정적인

1) 클러스터 다이어그램에 나타난 번호는 표 3에 제시된 빈도 순위이다.

〈표 6〉 비혼성인자녀-부모 동거 관련 핵심단어의 매개중심성

순위	단어	매개중심성 수치
1	가족	.461
2	사회	.341
3	아동	.269
4	결혼	.232
5	상당	.222
6	이혼	.212
7	부부관계	.190
8	문제	.187
9	경제	.185
10	재혼	.181
11	생활	.178
12	노인	.177
13	노년기	.175
14	가족관계	.152
15	노부모	.151
16	복지	.106
17	양육	.103
18	발달	.102
19	어려움	.097
20	부양	.088

인식이 강함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이 집단에는 ‘부부관계, 가족관계’ 등의 관계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핵심단어들이 포함되어 있고, ‘노인, 노부모, 노년기, 부양’과 같은 부모세대와 그들에 대한 부양의 이슈와 연관되는 핵심단어들도 함께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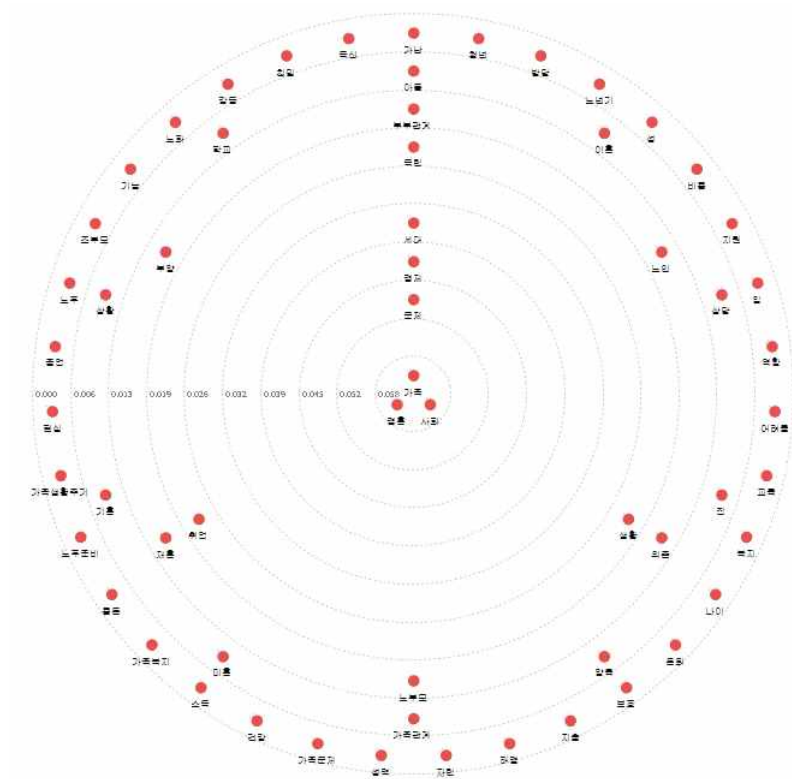
집단 2는 ‘심리/상당관련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이 집단은 포함되는 핵심단어의 수나 다양성의 정도는 집단 1이나 집단 3에 비하여 약하다. 하지만 비혼성인자녀-부모 동거의 문

제적 측면이나 취약성과 관련이 있는 핵심단어들의 집단으로 인식되며, 가족치료적 차원에서 접근하려 할 때는 주목을 끌 수 있는 집단이다. 이 집단에는 ‘아동, 양육, 보호, 학교’ 등의 핵심단어가 포함되어 있고 또 ‘이혼’이라는 핵심단어의 출현 빈도가 큰 편이기 때문에, 이혼, 재혼의 이슈를 둘러싸고 현재 비혼 상태에 있는 성인자녀들이 부모와 동거하게 되는 원인이 자녀들의 양육과 보호와도 연관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또한 이 집단에는 ‘성, 역할, 어려움, 건강’ 등의 핵심단어가 부각되는 것을 통해 이와 관련된 심리·정서적 측면에서 문제를 겪고 있고, 이것이 ‘상당’에 대한 필요성으로 연결된다고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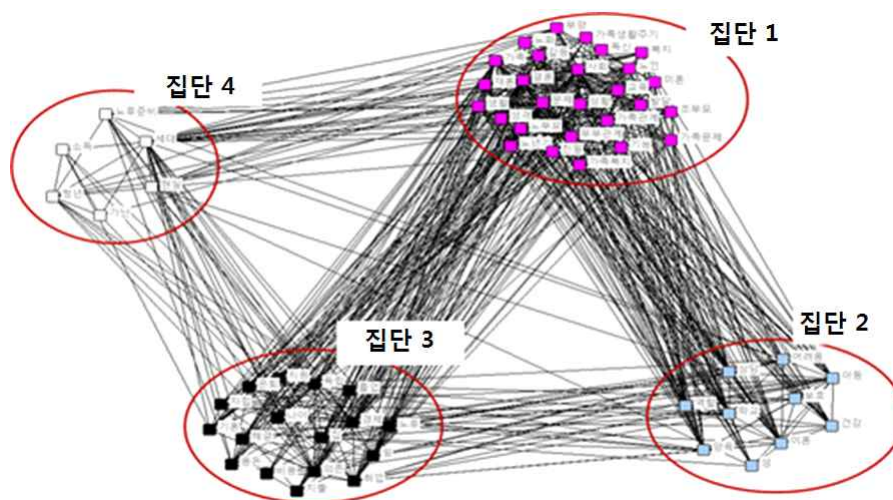
집단 3은 ‘경제관련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이 집단은 네 집단 중 두 번째로, 포함되는 핵심단어의 수도 많고 다양성도 크다. 주로 경제적 측면을 반영하는 이 집단에는 ‘취업, 비용, 일, 지출, 용돈’ 등 재정과 연관되는 단어들이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경제적 측면과 연관해 ‘독립, 의존, 지원, 해결, 자립’의 단어들이 함께 제시되고 있으며, ‘집, 기혼’ 등의 가족관련 단어와 ‘나이, 은퇴, 졸업’ 등의 생활주기관련 단어가 포함되고 있다.

집단 4는 ‘사회/세대관련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이 집단은 네 집단 중 핵심단어의 수가 작고 다양성도 적다. 이 집단에 포함된 단어들은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의 문제를 사회적 차원에서 조명해보는 시각과 관련이 된다. 사회경제적 구조의 시대적 변화에 따른 자녀 세대인 ‘청년’의 ‘가난’, 부모 세대의 ‘소득’ 감소에 따른 ‘노후준비의 어려움과 ‘현실’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이 집단에 등장하는 핵심단어들의 성격을 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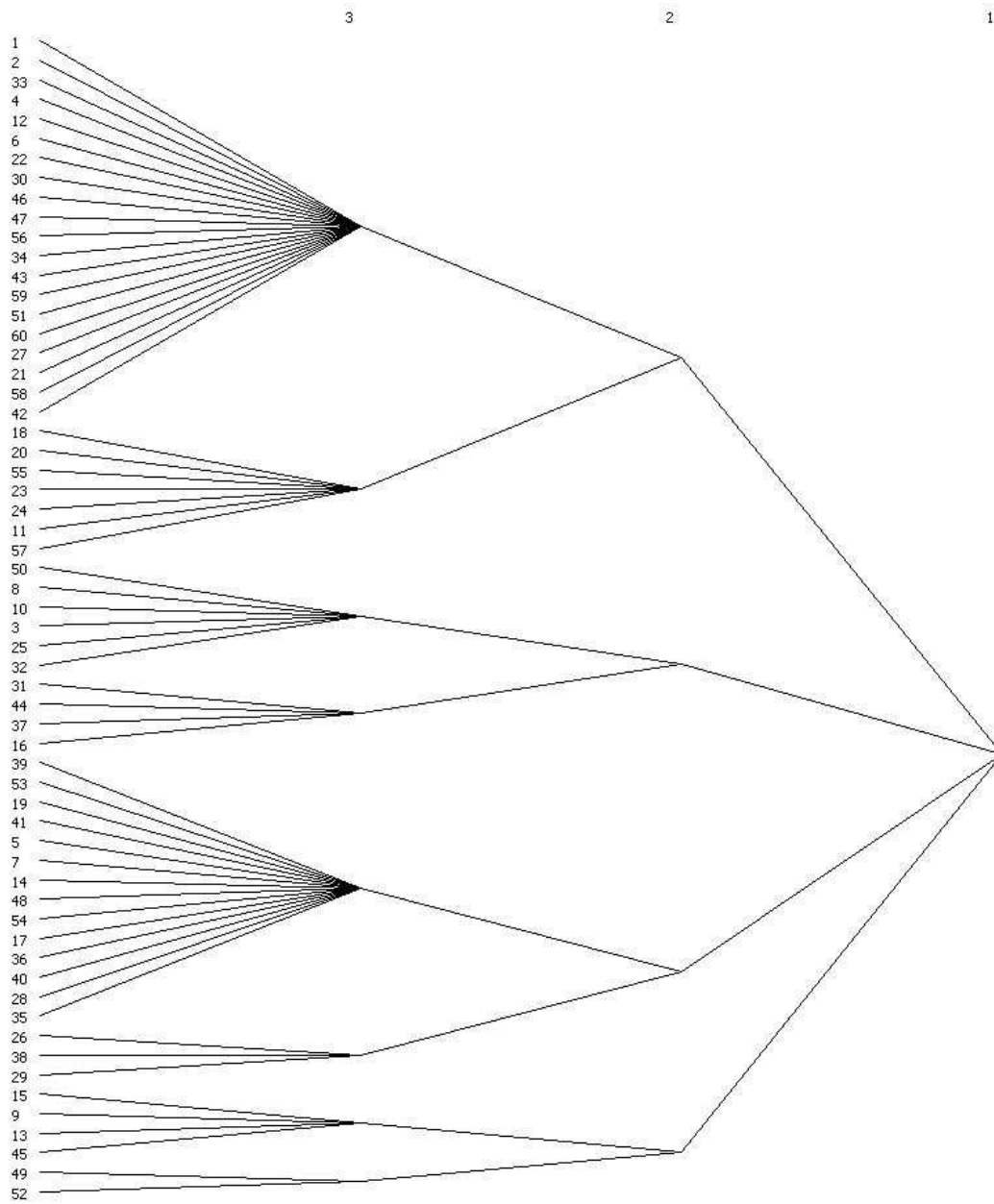
아울러, 그림 5에서 의미 네트워크의 하위



(그림 3) 비혼성인자녀-부모 동거 관련 핵심단어의 매개중심성



(그림 4) 비혼성인자녀-부모 동거 관련 CONCOR 분석 결과 시각화



(그림 5) 비혼성인자녀-부모 동거 관련 CONCOR 분석의 클러스터 다이어그램

집단 간 연결성의 강도를 살펴보면, 집단 1이 다른 집단들, 특히 집단2, 집단 3과 연결성이 가장 강하다. ‘가족관련 요인’은 비혼성인자녀-

부모 동거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는데, 그러한 동거가 발생하는 배경이나 과정에서 경제적인 문제가 많이 연루되기 때문에 이는 당

〈표 7〉 CONCOR 분석에 기초한 비혼성인자녀-부모 동거의 의미구조 유형

집단명	집단 1 (27단어)	집단 2 (10단어)	집단 3 (17단어)	집단 4 (6단어)
	가족관련 요인	심리/상담관련 요인	경제관련 요인	사회/세대관련 요인
	가족(136)	아동(55)	경제(41)	세대(35)
	사회(71)	이혼(36)	독립(38)	청년(23)
	결혼(54)	상담(26)	집(23)	가난(23)
	문제(38)	양육(22)	취업, 의존(21)	소득(9)
핵심	부부관계, 생활(24)	성(18)	비용(18)	노후준비, 현실(8)
단어	노인(21)	역할, 어려움(12)	지원(16)	
	노부모, 재혼(20)	보호(10)	일(13)	
	발달(19)	건강(9)	나이, 은퇴, 지출(10)	
	노년기, 가족관계(18)	학교(8)	해결, 자립, 기혼(9)	
	부양(16)		용돈, 졸업(8)	

주: 표에서 제시된 집단 1의 미표기 단어는 미혼(13), 교육·복지(11), 성격·가족문제·상황(9), 가족복지·가족생활주기(8), 조부모·친밀·기능·노화·갈등(7), 독신(6)이며, 집단 3의 미표기 단어는 노후(7)이다.

연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비혼성인자녀-부모 동거에 있어 나타나는 여러 심리·정서적 취약성으로 인해 ‘가족관련 요인’은 상담적 개입에 대한 요구와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비혼성인자녀와 부모의 동거에 대한 웹 문서의 의미구조를 파악함으로써 현재 한국사회에서 ‘캥거루족’이라 일컬어지는 가족의 세대관계 속성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가족치료적 함의를 얻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 포털사이

트 네이버(NAVER)에서 제공되는 블로그, 카페, 뉴스, 지식 iN 등의 웹 문서 278개를 대상으로 텍스톰(Textom) 3.0프로그램을 이용한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을 통해 빈도 분석, 중심성 분석, CONCOR분석 등 핵심단어들의 의미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결론 및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웹 문서에 등장하는 비혼성인자녀-부모 동거 관련 핵심단어는 ‘가족’, ‘사회’, ‘아동’, ‘결혼’, ‘경제’, ‘문제’, ‘독립’, ‘이혼’, ‘세대’, ‘상담’이다. ‘가족’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가족원과 가족관계와 관련되는 단어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비혼성인자녀-부모 동거의 이슈가 가족원들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며, ‘사회’의 언급이 빈번

한 것은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사회적 관심의 환기와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혼’과 ‘이혼’은 성인자녀가 부모와 동거하게 되는 원인이자 배경이 비혼이기 때문에 자주 등장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는 비혼성인자녀의 부모와의 동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해 ‘독립’은 핵심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가족치료적 개입의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상담’은 비혼성인자녀-부모의 동거가 ‘문제’의 상황으로 인식되어 개입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며, ‘세대’는 비혼성인자녀-부모 동거의 핵심적인 축을 구성하고 있고 발달적 이슈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빈도 높게 추출된 핵심단어들이 관련되는 차원들은 최연실(2014)이 제기한 성인자녀의 부모 동거와 관련된 분석틀에 포함된 차원들(가족관계적, 정책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발달적)과 상당히 일치하는 경향이 보인다.

둘째, 비혼성인자녀-부모 동거에 관한 웹 문서에서 도출된 핵심단어들 중 연결중심성과 위세중심성이 높은 단어들은 ‘가족’, ‘사회’, ‘결혼’, ‘문제’, ‘경제’이다. 한편, 매개중심성이 높은 단어들은 ‘가족’, ‘사회’, ‘아동’, ‘결혼’, ‘상담’이다. ‘가족’은 비혼성인자녀-부모 동거와 관련해서 다른 단어들과 가장 많이 연결되면서도 가장 많이 교량 역할을 함으로써 의미 네트워크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한다. 이는 ‘캥거루족’이라는 용어가 하나의 가족형태 혹은 가족원들이 살아가는 라이프스타일과 관련(최형아, 이화영, 2010)되기 때문에 쉽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결과이다. 또한 이 단어들 중 ‘사회’는 위세중심성에서는 ‘가족’과 순위가 뒤바뀜으로 해서, 이 단어가 비혼성인자녀-부모 동거에서 영향력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흔히 ‘캥거루족’으로 일컬어지는, 부모와 동거하는 비혼성인자녀들의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이들의 출현이 단지 개인이나 가족의 차원에서 벗어나서 사회경제적 구조변동과 노동과 고용 등 사회적인 차원의 문제와 연루되어 있다(Descartes, 2006; Vassallo, Smart & Price-Robertson, 2009; Yamada, 2004). 따라서 비혼성인자녀-부모 동거의 이슈에서 ‘사회’라는 단어가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은 당연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중심성과 관련하여 더불어 주목할 결과는 매개중심성에 ‘아동’이나 ‘상담’이 높은 순위로 나타나는 점이다. 매개중심성은 단어와 단어 사이의 ‘중개자’ 역할과 ‘문지기’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아동’이나 ‘상담’이라는 핵심단어가 비혼성인자녀-부모의 동거에 대한 의미 네트워크에서 정보의 흐름을 이어주거나 차단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결혼의 경험이 있지만 현재는 이혼을 한 비혼성인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는 과정에서 아동기에 있는 자녀들의 존재가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비혼성인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위기의 해결과정에서 상담이 관련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감지할 수 있다.

셋째, 비혼성인자녀-부모 동거에 관한 웹 문서에서 도출된 핵심단어들은 ‘가족관련 요인’ 집단, ‘심리/상담관련 요인’ 집단, ‘경제관련 요인’ 집단, ‘사회/세대 관련 요인’ 집단 등 4가지 하위집단으로 구분된다. 또한 ‘가족관련 요인’ 집단은 4가지 하위집단 중 가장 다른 집단들과 연결성이 강하며, 특히 ‘심리/상담관련 요인’ 집단, ‘경제관련 요인’ 집단과 강하게 연결되고 있다.

‘가족관련 요인’ 집단은 비혼성인자녀-부모

의 동거에 작용하는 가족적 배경과 사회적 맥락의 영향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인자녀이지만 부모와 동거를 하게 되는 원인이 결혼과 같은 발달과업의 미성취나 연기, 이혼 등으로 인한 독신 지위로의 회귀 등과 관련되는 여러 변수들과 연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집단에서 ‘문제’라는 핵심단어의 빈도가 부각되는 것을 볼 때, 비혼성인자녀-부모의 동거가 ‘사회문제화’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과 갈등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적 개입에 대한 필요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아울러 이 집단에는 부부나 가족의 관계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핵심단어들도 있지만, 노년기에 접어드는 부모 세대의 부양이나 복지가 연관되는 핵심단어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비혼성인자녀-부모 동거가 상담이나 치료적 개입과 같은 미시적 차원의 서비스와 더불어 복지정책을 통한 거시적 차원의 지원도 필요함(성미애 등, 2017)을 알 수 있다.

‘심리/상담관련 요인’ 집단은 비혼성인자녀-부모 동거의 문제적 측면이나 취약성과 관련이 있으며, 가족치료적 개입의 필요성과 가장 강하게 연결된다. 이 집단에서 부각된 아동, 양육, 보호나 이혼, 성, 역할, 어려움, 건강 등의 핵심단어는 비혼성인자녀-부모의 동거가 가족원들이 경험하는 심리·정서적 측면의 이슈들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시킨다. 이와 관련해서 특히 주목할 것은 비혼성인자녀와 부모의 세대 간 동거가 노부모의 결혼의 질을 다소간 위협한다고 밝힌 바 있는 Choi 등(2017)의 연구이다. 자녀가 성인기에 진입하고 부모가 노년기에 이르는 생애단계에서도 ‘결코 끝나지 않는’ 부모역할의 연장으로 인해 부모들의 부부관계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상황은 가족치료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하는 지점이다. 하지만 부모의 결혼만족도와 갈등에 미치는 세대 간 동거의 영향이 세대 간 친밀성과 가사노동을 고려할 때 사라지고, 세대 간 접촉의 빈도가 부모가 성인자녀와 함께 살 때조차도 노부모의 복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며, 성인자녀를 도와주기 위해 가사노동을 제공하는 것은 노부모의 관계적 복지에 반드시 해로운 것은 아닐 수 있다는 Choi 등(2017)의 연구 결과는 상담 현장에서 ‘상호의존’의 유익을 강조할 필요성을 환기시킨다. 가족치료적 개입을 하는 상담 현장에서는 비혼성인자녀와 부모의 동거와 관련해 갈등을 겪는 양 세대에게 호혜성을 발견하고 인식하게 하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경제관련 요인’ 집단은 취업, 비용, 일, 지출, 용돈 등 재정과 연관되는 단어들이 포함되며, 이러한 경제적 측면과 연관해 독립, 의존, 지원, 해결, 자립의 이슈들을 제기한다. 경제적 기반이나 재정 지원에서의 안정감 상실은 심리·정서적 차원의 위기감이나 불안감과도 연관될 수 있으므로, 비혼성인자녀와 부모의 동거를 다루는 임상 장면에서도 이러한 경제적 상황에 대한 파악과 그와 연관된 정신건강의 유지 지원은 가족치료자가 이러한 가족들을 만나는 데 있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항이다.

‘사회/세대관련 요인’ 집단은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의 문제를 사회적 차원에서 조명해 보는 시각과 관련이 된다. 비혼성인자녀와 부모의 동거가 다분히 사회경제적 구조변동에 연루되어 있음(최형아, 이화영, 2010)을 인식하게 되면, 치료장면에서 이와 연관된 문제를 다루는 임상가들도 개인적 인성이나 관계적

역동에서만 이를 다루지 말고 사회적 관점을 포용하면서 개별적인 가족 상황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예전에는 가난의 문제가 개인의 나태나 방만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다면 이제는 사회구조적 차원에서의 빈곤 발생에 대한 인식이 점차 증대해가고 있다. 이는 자식 세대에 속한 청년층과 부모 세대에 속한 노인층에게 공통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관점이 될 것이다.

앞에서도 밝힌 바처럼,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비혼성인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맺기에 대한 정상적이고도 특정한 규범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생활양식의 전개과정에서 비혼성인자녀는 ‘독립’과 ‘의존’, 그리고 부모는 ‘통제’와 ‘허용’의 양가적 태도나 가치 사이에서 갈등과 긴장을 경험한다. 따라서, 이러한 가족형태에서 마찰이나 위기가 발생할 때,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극복해 나가는 것은 개별가족의 사정과 욕구에 따라 가능성이 크다. 속칭 ‘캥거루가족’에서 발생하는 가족문제의 기저에 깔려있는 이슈들에 접근할 수 있는 가족치료적 기법은 주로 전통적 모델에 기반을 둔 것들이 다수로 보인다. 예컨대, 원가족 중심의 다세대 접근을 하는 보웬 모델(Bowen, 1978)은 ‘자기분화’의 이슈와 ‘불안’의 감소에, 또 동일하게 원가족이 중심이 되지만 세대관계의 윤리를 보다 더 강조하는 맥락적 모델(Boszormenyi-Nagy & Krasner, 1986)은 ‘공평성’에,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는 가족의 구조를 재조직화하는 데 관심을 두는 구조적 모델(Minuchin, 1974)은 ‘경계 설정’과 세대 간 ‘연합’의 해소에 각각 초점을 두고 비혼성인자녀와 부모의 동거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개입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던 바와 같이, 사회적, 경

제적 차원에 깊이 매몰되어 있는 비혼성인자녀와 부모의 동거 문제를 고려해 볼 때 ‘지배담론’의 해체나 ‘대안적 이야기’의 구성도 탐색해 볼 수 있으므로 이야기치료모델(White & Epston, 1990) 등 후기 가족치료적 개입도 기여할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앞으로도 ‘캥거루가족’이 직면한 현실은 문제해결의 수단으로서 가족치료에 의존할 가능성을 더 증대시키지만, 이에 대처하는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개입전략은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형편이다.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비혼성인자녀와 부모가 동거하는 가족에 대한 임상적 개입에 대한 연구나 실천이 미흡한 현실에서 기초적이고 탐색적인 성격을 갖는 연구로서 데이터 마이닝 분석을 통해 비혼성인자녀-부모 동거에 대한 웹 문서의 의미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가족치료적 함의를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웹 문서의 검색 비교적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포털사이트(NAVER)를 선정하기는 하였으나, 이 단일한 포털사이트를 통해 텍스트를 추출하였으므로 대표성이나 일반화의 한계를 갖게 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포털사이트의 확대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의미 네트워크 분석 시에 데이터의 모든 단어를 사용할 경우 노드의 개수가 너무 많아서 시각화하여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분석에 포함되는 단어의 수를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며 보통 연구자가 시각화에 적절한 수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에서도 다소의 임의성이 개입할 수 있었는데, 후속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엄밀한 기준에 대한 검토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는 학문적 합의 도출에 주안점을 두어 검색어를 많이 제시함으로써 최종 분석에 사용한 웹문서의 수가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현재 나날이 발전해 가는 빅데이터 분석을 정통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려면, 검색어를 제시하는 대안적인 방법들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보다 빅데이터에 부합하는 많은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소수의 검색어를 제시하고, 또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보기 위해서는 통념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일상적 언어들이 포함되거나 복합명사들을 분리하는 방식 등을 사용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접근을 시도하지 않았다. 따라서, 예컨대, ‘갱거루족’과 같은 가족형태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통해 가족치료적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한다면, 향후의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해서 명실공히 빅데이터를 수집해 최신의 첨단적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권소영, 박지수, 이재림 (2018). 의미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양육 스트레스 관련 국내 학술지 연구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6(4), 57-72.
- 김용학, 김영진 (2016). *사회연결망 분석*(4판). 서울: 박영사.
- 김은정 (2014). 20대 청년층의 새로운 생애 발달단계로서 “성인모색기”(Emerging Adulthood)에 관한 탐색 연구. *담론* 201, 17(3), 83-129.
- (2015). 부모 자녀 관계를 통해서 본 20대 청년층의 성인기 이행과정 연구. *가족과문화*, 27(1), 69-116.
- 김준현 (2015).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결과 해석에 관한 소고: 행정학 분야 연구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16(4), 247-280.
- 김해원, 전체남 (2014). 빅데이터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1(3), 5-51.
- 박치성, 이준석 (2017).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대규모 텍스트의 자료정리(Data Cleaning) 방법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와 행정*, 27(4), 35-68.
- 박치성, 정지원 (2013).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사회적 인식 네트워크(socio-cognitive network) 분석을 통한 정책이해관계자 간 공유된 의미 파악 사례. *정부학연구*, 19(2), 73-108.
- 배희선 (2008). 중노년기 가계의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의 이전 규모: 증여와 상속을 중심으로. *소비자정책교육연구*, 4(4), 81-106.
- 성미애, 이재림, 최연실, 최세은 (2017). 아버지 부재 비혼 딸과 어머니의 동거 경험: 일방적 의존과 상호적 의존의 경계에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5(3), 139-158.
- 성미애, 최세은, 최연실, 이재림 (2018). 이혼한 딸과 부모의 동거 경험: 일방적 의존과 상호적 의존의 경계에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6(2), 139-158.
- 성미애, 최연실, 최세은, 이재림 (2017). 부모-비혼 성인자녀 관계의 재조명: 동거 및 경제적 의존 여부에 따른 집단별 특성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5(1), 139-158.
- 송태민, 송주영 (2015). *빅데이터 연구 한 권으로 끝내기*. 서울: 한나래출판사.
- 이동일, 이해준 (2012). 소비자 집단 인터뷰에서 의미 네트워크 응집 구조의 이해. *소비자학연구*, 23(2), 249-272.
- 이수상 (2012).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 서울: 논형.
- 이진경, 이재림 (2019). 한국 청년의 세대 간 양가성과 세대 간 결속의 연관성 탐색.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7(1), 1-21.
- 장령령, 홍현진 (2014). 학술지 중요도와 키워

- 드 순서를 고려한 단어동시출현 분석을 이용한 독서분야의 지적 구조 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5(1), 295-317.
- 정승환, 호혜담, 송영수 (2014). 핵심어 네트워크 분석(network analysis)을 통한 국내 HRD 연구 동향 탐색. *HRD연구*, 16(3), 1-33.
- 조재인 (2011).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통한 문헌 정보학 최근 연구 경향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28(4), 65-83.
- 최여진, 이재림 (2014). 성인자녀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도구적 지원 관련 요인: 지원에 대한 태도 및 지원 제공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5), 87-105.
- 최연실 (2014). 성인자녀의 부모 동거 현황 및 분석틀의 탐색.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4), 75-89.
- 최형아, 이화영 (2013). 우리나라 ‘캥거루족’ 규모 및 현황. *고용이슈*, 6(2), 3-25.
- 한국가족치료학회 (2016). *가족치료 사례집*. 서울: 한국가족치료학회.
- Aquilino, W. S., & Supple, K. R. (1991). Parent-child relations and parent's satisfaction with living arrangement when adult children live at hom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1), 13-27.
- Boszormeni-Nagy, I., & Krasner, B. R. (1986). *Between give and take: A clinical guide to contextual therapy*. New York: Brunner-Routledge.
- Bowen, M. (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 Choi, S., Sung, M., Choi, Y., Lee, J. (2017). Does living with unmarried adult children threaten marital relationships of elderly Korean couples? *Global Aging and Health: Bridging Science, Policy and Practice*. The 21st IAGG World Congress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Poster Presentation.
- Connidis, I. A., & McMullin, J. A. (2002a). Sociological ambivalence and family ties: A critical perspectiv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 558-567.
- (2002b). Ambivalence, family ties, and doing sociolog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 594-601.
- Dennerstein, L., Dudley, E., & Guthrie, J. (2002). Empty nest or revolving door? A prospective study of women's quality of life in midlife during the phase of children leaving and re-entering the home. *Psychological Medicine*, 32, 545-550.
- Descartes, L.(2006). Put your money where your love is: Parental aid to adult children.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13, 137-147.
- Fan, W., Wallace, L., Rich, S., & Zhang, Z. (2006). Tapping the power of text mining. *Communications of the ACM*, 49(9), 76-82.
- Gierveld, J. J., Dykstra, P. A., & Schenk, N. (2012). Living arrangement, intergenerational support types and older adult loneliness in Eastern and Western Europe. *Demographic Research*, 27(7), 167-200.
- Lee, J., Choi, S., Choi, Y., & Sung, M. (2017). Coresidence between ever-single adult children and older parents in Seoul: Latent profile analyses of intergenerational relations. *Families as catalysts: Shaping neurons, neighborhoods, and nations*. 2017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Annual Conference Oral Presentation.
- Lin, J. P., & Yi, C. C. (2013). A comparative analysis of intergenerational relations in East Asia. *International Sociology*, 28(3), 297-315.
- Manacorda, M., & Moretti, E. (2006). Why do most Italian youths live with their parents? Intergenerational transfers and household structure.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4(4), 800-829.
- Minuchin, S. (1974). *Families and family therap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Raulin, M. L. (1984). Development of a scale to measure intense ambivalenc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2, 63-72.
- Silverstein, M., & Bengtson, V. L. (1997).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and the structure of adult child-parent relationships in American famil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3(2),

- 429-460.
- Vassallo, S., Smart, D., & Price-Robertson, R. (2009). The roles that parents play in the lives of their young adult children. *Family Matters*, 82, 8-14.
- White, L., & Edwards, J. N. (1990). Empty the nest and parental well-being: An analysis of national panel data.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5(2), 235-242.
- White, M., & Epston, E. (1990). *Narrative means to therapeutic ends*. New York: Norton.
- Yamada, M. (2004). *Parasite single no ji*. Seoul: Sungshin Women's University Press.
- ☐ 논문접수일 : 2019년 07월 14일
- ☐ 심사시작일 : 2019년 08월 05일
- ☐ 게재확정일 : 2019년 09월 10일

Semantic Structure Analysis of Web Documents on Coresidence between Single Adult Children and Older Parents and Family Therapeutic Implications

Youn-Shil Choi

(Dept. of Family Welfare, Sangmyung University)

Objectives: The twofold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semantic structure of web documents about the coresidence between single adult children and older parents by using big data analysis and to approach the characteristics of the family generational relationship known as 'Kangaroos' in Korea, as well as to glean the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on family therapy. **Methods:** For this purpose, text mining using the Textom 3.0 program is applied to web documents such as blogs, cafes, news, and knowledge iN, which are provided by the domestic portal site NAVER. Further, Semantic Network Analysis of keywords applying Frequency Analysis, Centrality Analysis and CONCOR Analysis is performed. **Result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Frequency Analysis, 'family', 'society', 'child', 'marriage', 'economy', 'problem', 'independence', etc. are found,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family type often referred to as 'Kangaroos'. Second, in Centrality Analysis, concepts such as 'family', 'society', 'marriage', 'problem', 'economy', 'child', and 'counseling' are found to be central to the meaning structure. Finally, in CONCOR analysis, four blocks (groups) such as family related factors, psychological/counseling related factors, economy related factors, and social/generation related factors are extracted. **Conclus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problems surrounding the coresidence between single adult children and older parents are related not only to the family but also to social and economic level, implying the necessity of counseling intervention to resolve problems in the psychological dimension.

Keywords: *single adult children, older parents, coresidence, web document, text mining*